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

학개 2:1-9, 히브리서 12:22-29

최정웅 목사님

요약

서론 : 어느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백성의 운명을 좌우한다.

1. 우리의 신분 :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자

- (1) 새 언약의 증보자 되신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시다.
- (2)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함을 얻었다.
- (3) 우리의 배경은 영적인 세계,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

2. 우리의 사명 :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것

- (1)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
- (2)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 (3) 쓴 뿌리를 제거하고 바른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야 한다.

결론 :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복음에 집중하라.

- (1) 이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국이 진동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 (2) 무기력, 무능력, 무응답을 소멸하는 하나님의 불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친히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8월이다. 지난주에는 램넛 리더수련회가, 1500명 정도 모여서, 대구 하교교회에서 은혜롭게 잘 마쳤다. 이번 주에는 13,000명이 넘는 램넛들과 함께 세계램넛대회(WRC : World Remnant Conference)가 부산에서 열리게 된다. 지금 사실 전 후대들이 흑암 문화와 미디어에 노예가 되어 있다.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져 가고 있다. 모든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고, 우리가 겪고 있다. 한국, 세계 교회가 후대를 잘 돌보지 못하고 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램넛들을 일으키고 계신 것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재앙의 흐름을 없애는 이 자리에 우리 램넛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후회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우리가 목상하기를 원하는 주제는, 어떤 흐름 아래 있느냐, 어떤 배경 아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일이다.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켜서 독일군 부대를 항복시켰는데, 난데없이 조선 사람 세 명이 그 속에 있었다. 포로로 잡힌 것이다. 어떻게 된 것인지 나중에 밝혀졌는데, 일제시대라서 일본군에 강제 징집된 것이었다. 이 사람들이 일본과 소련이 싸울 때 소련군에게 포로로 잡혔다. 그러다가 소련 군대에 붙잡혀서 소련과 독일이 싸울 때 나갔다가 또 붙잡혔다. 그래서 독일 병사가 되어서 연합군과 싸우다가 잡힌 것이다. 기구한 운명 아닌가. 총알받이가 되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했던 기구한 운명의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백성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배경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멸망해서 사라질 세상 나라의 배경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따라서 모든 문제는 끝났다. 확실한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신분의 사람들이라는 말이다.

1. 우리의 신분 : 그 나라의 상속자

첫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의 신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

(1)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원수 악령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 버렸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아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 하다가 완전히 망한 인생이 된 것이다. 그런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 단 하나 뿐이다. 오늘 히브리서 12:24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밝히고 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의 저주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미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 1:12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2)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어떤 신분인가? 24절에 보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로 구속함을 받은 신분이라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

배로운 피를 마음 중심에 바른 자는 경계하게 되었다. 절대 죄와 저주로 멸망할 수 없는 신분이 된 것이다. 할렐루야!

(3)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피로 속죄를 받아서 깨끗하게 된 우리에게, 엄청난 배경이 임하게 되었다.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것은 오늘부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내용이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 되었음을 믿는다.

① 22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라고 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큰 배경이다. 23절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 자녀의 모임이 우리의 배경이라고 했다.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다. 앞서 천국에 들어간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바로 그 천국이 우리의 배경인 것이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의 배경을 제대로 보아야 되겠다. 그 자부심과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외로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배경을 누리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② 28절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했다. 우리가 소유하게 된 나라, 상속하게 될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흔들리게 될 나라가 아니다. 위기도 재앙도 못 피하는 흑암 나라가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배경이다. 그것을 믿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라. 마16:18에,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절대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이유가 없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오늘 은 형에게 왔다가 내일은 아우에게 갔다가 모래는 아버지의 심판을 받는 그런 나라, 그런 재산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나라다. 특권인에게만 왔다갔다 하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되시기 바란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늘의 배경인 천사가 동원되면, 현상이나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누리면서 살라는 것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영적인 큰 축복과 배경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의 배경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 빌3:20에서 바울은 고백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권세를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나라를 목상하시기 바란다. 특히 나이가 든 분들, 천국이 눈앞에 왔다갔다 하는 분들은 세상 바라보지 마라. 큰아들은 어디 갔나, 막내는 왜 안 오나, 왜 이놈들이 나를 버렸느냐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이르기를 축원한다. 그 나라가 있음을 잊지 마라. 이 땅에서 당하는 고생은 잠시, 잠깐이다. 우리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충분한 나라다. 승리하시기 바란다. 천국 시민이 되었음을 잊지 마라. 어떤 경우, 어떤 처지에서든 그래야 한다. 요셉은 노예로 가도 당당했다. 감옥에 가도 당당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과,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현실로 변했다. 그는 마침내 자기 민족과, 당시 세계 최고 나라였던 애굽과 전 세계를 살리게 되었다. 그 신분이 바로 우리의 신분임을 잊지 마라.

2. 우리의 사명 : 그 나라의 비밀 누림

두 번째 목상할 것은, 이 배경을 가진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다. 그 나라의 비밀을 누릴 사명이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못 누린다면 얼마나 바보인가.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모았는데, 그것을 베개 속에 넣어둔 것이다. 그리고 베개만 만지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 쓰던 냄새나는 것 다 치운다고 불 속에 던져 버렸다. 다 타고 나서 보니까 베개 속에 있던 돈도 다 타 버렸다. 여러분, 천국 시민은 허망하게 잃어버릴 그런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타지 않는다. 그렇게 허무한 것이 아니다. 승리하시기 바란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체득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다. (1)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 나라를 소유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해라, 더 노력을 해라, 1억 씩 가져와라 하는 말이 없다. 그냥,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 된다는 것이다. 우리

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누리지 못하면 황폐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시간마다 복음을 누리면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그 갈보리산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를 늘 생각하라. 오늘 성찬식을 할 때도 생각하라. '나를 기념하라'고 했다. 이것은 회상하라는 말이다.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반추하라, 되새김질하라는 말이다.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예배 속에서 복음을 계속 듣고, 현장 가서는 복음을 계속 적용해 보시기 바란다. 그러면 내 영혼과 마음과 지식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수년 전에 친구가 시무하던 과천교회에서 여름수련회가 열렸는데, 나를 강사로 초청했다. 갔더니 목사님 아들이 치과의사로서 그 교회 집사였다. 이 아들이 미란다호텔에 방 셋을 얻어다 주었다. "목사님, 이것 교회 돈이 아니라 제 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던데, 좀 부러웠다. 그래서 집회 현장에 갔는데, 너무 어두워서 원고를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모르겠다 하고 복음메시지를 쏟아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어떤 분이 와서 인사를 하는 것이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 남편이 그때 주신 메시지를 CD로 차에서 듣는데 여섯 번이나 들었어요. 우리 남편이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은혜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교인들은 한 번도 안 듣는데, (웃음) 그분은 여섯 번이나 들었다. 백운규 목사는 내 합숙훈련 스승이고, 반대로 신학교에서 나에게 배운 제자이기도 한데, 이분이 한 이야기다. "저는 수영로교회 집회 11강을 102번 들었습니다. 머리가 멍청하기 때문에 한두 번 들어서는 안 되니까, 102번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리면 복음이 나온다는 것이다. 나는 미국을 순회하면서 메시지를 전할 때, 영접 메시지를 12번 들으라고 했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한 번 겨우 듣고 끝낸다. 그러니 영접운동이 절대 안 일어난다. 다락방 운동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개는 102번은 들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50번이라도 들어라." 절대 안 듣는다. 지금도 안 되고 있다. 놀라운 일 아닌가? 여러분, 복음을 계속 묵상해야 한다. 예배 속에서 계속 복음을 들어야 한다. 현장 가서는 복음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28절에, "경건함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날마다 은혜를 받도록, 공예배와 개인예배를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란다. 그렇게 하라는 주의 말씀이다. 예배기도하고 정시기도하면서 복음을 누리라는 말이다. 놀리지 말고, 붙잡히지 말고, 복음 누리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우리 체질이 바뀌고, 우리 속에 복음이 깊이 각인되고, 뿌리도 내려지게 된다.

(2)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15절에 나온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주위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못 누리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교회에 왔는데도 전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분들을 찾아서 도와주라는 것이다. 건방떨지 말고 겸손하게, 나는 이렇게 은혜받았다고 이야기하라.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지만 해도 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 말도 못 하고 혼자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전해주면 역사가 일어난다. 당신에게 임한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교회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우리 참사랑교회에서 예배하는 분 중에서 은혜 못 받는 분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란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가족과 이웃과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할 일이다.

(3) 특별히 한 가지가 더 나온다. 15절에, 쓴 뿌리에 속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나를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더럽게 만든다. 이 쓴 뿌리는 이상하게도 딱 맞는 말만 한다. 그런데 사람에게 은혜를 못 끼친다. 살리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고, 사람을 더 광박하게 만든다. 그 쓴 뿌리에 속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바르게 내려야 한다. 사람 속에 있는 뿌리, 각인, 체질이 안 바뀌면,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된다. 옛날 장학퀴즈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차인데 아나운서가, 한동안 보이지 않아서 궁금했는데, 국민일보에 이번에 글을 썼기에 보았다. 이분이 암을 비롯해서 여러 질병을 두고 9번이나 수술을 했다고 한다. 9전 10기를 했다는 것이다. 자기는 뭘 좀 알고, 좀 가지기도 했고, 말도 잘 하고, 뭘 좀 되는 사람임 줄 알았는데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더라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더라. 그 글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졌다. 우리가 꼭 그 자리에 가야만 깨닫겠는가. 그 자리에 가기 전에,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다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한다. 복음을 받았는데도 삶의 각인, 뿌리 체질이 흑암 문화, 흑암 지식, 인본주의에 빠져 있으면 계속 실패가 온다. 그래서 이 뿌리를 바꿔야 한다. 복음을 계속 읽고 듣

고 말하면서 각인시켜야 한다. 불신앙하는 뿌리와 체질을 뒤집어야 한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은혜받는 체질과 뿌리를 만들면,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 손녀가 전에 비전스쿨 다닐 때 복음소식을 암송했는데 썩 잘 했다. 나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손녀가 한 것을 보라고 보여주고 그랬다. 그런데 최근에 물어보니까 절반은 잊어버렸다고 했다. 그래서 다시 암송해 보라고 했다. 다 하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했더니, 10만 원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더라. (웃음) 그것으로 신발도 살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다.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알려 주었다. 일부러 천 원 짜리로 바꿔서 주려고 한다. (웃음) 얼마 전에 시작했다고 한다. 평생 잊지 못할 연약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암송하면 그 속에 들어가게 된다. 신천중앙교회에 내가 제직수련회를 가 봤는데, 담임목사님이 부목사님의 아버지였다. 신학교수고 훌륭한 분이였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메시지에 성경구절이 많지 않나? 그대로 쪽 해 나갔는데, 이분이 놀란 토끼눈을 하더니, 나중에 묻더라. "최목사, 당신은 성경을 다 외웁니까?" 다 해봐야 30, 40구절 뿐인데, 이것 외운 것을 두고 성경을 다 외운 것 아니냐 하는 것이다. 청년 때 내가 했던 것이다. 제발 우리 램넛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 음식을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안 먹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금욕주의를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할 때 거룩해지는 것이다. 승리하시기 바란다. 정말 은혜를 받으시고 축복 받으시기 바란다. 은혜가 쏟아지는 곳에서 저주를 받지 마라. 저주는 사단에게 던져 버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참사랑교회 있는 동안 여러분의 이름을 모든 사람이 기억하게 하라. 이번에 대구에 갔는데, 숙소가 서현교회 맞은편이었다. 이 교회를 정규만이라는 분이 다 지었다. 약령시장에서 한약을 팔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전라도 장성의 돌산을 사서, 그 돌을 실어다가 쌓아서 교회를 지었다. 대지는 3천 평이나 된다. 그 교회를 보니까 그분 생각이 났다. 그분의 기도가 무엇이었는가? "이 교회가 완성되고, 내가 교회에 거치는 돌이 되면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12년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 북한에는 조만식 장로님, 영남에는 정규만 장로님, 전라도에는 김영남 장로님이 있었다. 참사랑교회에도 그런 장로님이 나오기를 바란다.

오늘 메시지를 요약하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음을 기억하고 누리라는 것이다. 복음을 나와 내 주변 사람에게 각인시키라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이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집중의 응답을 모두가 받고 누리게 되기를 축원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론이다. 나라를 누리는 집중을 회복하면 어떤 응답이 오는가? 26절에, 땅과 하늘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무슨 말인가? 27절에, 영원한 것을 누리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변동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한 것을 누리면, 현장에서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경제, 산업, 미래, 학업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만큼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은혜받는데, 모든 무기력과 무능력을 소멸하는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 같은 사람도 변할 수 있다. 이번 주간,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라고, 그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복음에 집중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재창조의 응답, 무기력 무능력 무응답을 무너뜨리는 오순절 날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한다. 오늘 주께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 된다. 참으로 놀랍게도,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나라를 누릴 자입니다' 고백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복권에 당첨된 것같은 일이 막 일어난다. 복권 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우리 램넛트들에게, 참사랑교회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요, 내 앞의 등불이요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 되었으니,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며, 참사랑 모든 램넛트들이 학업에 승리하고, 산업에 성공하며, 직장에서는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무장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증거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리 하도록 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